

정읍시, '빛의거리' 태평로 환경개선 추진

조형물 설치·청년창업챌린지숍 등 명품 특화 거리 조성

원도심 골목상권 활성화·청년 창업 기회 제공 효과 노려

정읍시가 원도심의 낙후된 상권 활력과 청년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빛의 거리' 태평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시민 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에 포함된 태평로 구역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명품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기동 천주교회에서 샘골 시장을 연결하는 태평로 구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빛과 청년 창업을 테마로 조성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기 성당을 활용한 야간경관 조명과 진입 게이트, 도로환경

정비와 쌈지공원, 조형물 설치, 청년창업챌린지숍, 청년 주택 등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이 낙후되고 방문객 감소 등으로 상권이 쇠퇴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방문객의 편의와 거리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중화 사업과 화강석을 이용한 차도와 인도 포장 등을 완료했다.

16일부터는 시기 성당에서 샘골 시장까지 차량 진행 방향이 일방통행으로 변경되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야간조명과 청년창



'빛의거리' 태평로 환경개선사업 평면 조감도.

업챌린지숍 등 잔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정읍을 대표하는 명품거리로 조성하겠다"며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지원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LED조명 단 '남원터널' 환해졌다

10억원 투입 노후선로 교체·시선 유도등 개선도

남원시를 오가는 첫 관문인 남원터널(사진)이 산뜻하게 정비된다.

남원시는 평소 고장이 잦고 조도가 낮아 통행자들의 민원이 많았던 남원터널 조명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노후해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나는 기존 황색 나트륨 조명을 모두 철거한다.

LED조명으로 교체해 조도와 수명을 늘린다.

또 안전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기존 조명 철거와 함께 노후한 선로를 교체, 시선 유도등 개선 등을 진행한다.

사업은 총 10억원을 투입해 이달 중 공

사를 착수,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시는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 환경 개선과 기존 매일 500만원씩 지출된 전기사용료가 줄면서 예산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터널 조명 개선사업으로 통행 불편 민원이 감소하는 효과 등이 기대된다"면서 "터널을 비롯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한 남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무인민원발급기 연중 24시간 운영

고창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확대해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연중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청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웠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동전 및 1000원 지폐로만 결제하던 시스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서비스를 도입했다.

발급가능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와 국세증명, 등기부등본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88종의 민원서류가 발급가능하며, 민원창구보다 최대 50%감면

된 수수료로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점자키패드, 화면확대 터치버튼 제공,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기기 조작 기능을 제공해 장애인과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고창군청, 농협하나로 마트, 고창읍사무소 등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한편 고창군은 내년 상반기에 종합병원 2개소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순창군, '행복주택' 완공...2차 입주자 모집

순창군은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해 조성한 행복주택이 완공됨에 따라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역 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2016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총사업비 3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행복주택을 건립했다.

지난달 완공한 행복주택은 지상 5층에 전용면적 29㎡형 4가구, 44㎡형 26가구 등 총 30가구 규모로 조성됐으며 변경 500m 이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관공서 등이 자리해 지리적인 이점도 크다.

특히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책정

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이 격정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로부터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자 신청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총 30가구 중 1차 모집 가구를 제외한 26가구에 대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가 해당하며,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지정기한 만료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여수시, 'COP 28유치위' 16일 출범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유치위

전남지사·경남지사, 시·도민 등 1500여명 참석

여수시는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이하 COP 28유치위)가 16일 오후 3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경남도, 여수시, COP28유치위가 공동으로 여는 출범식은 전남·경남도 지사와 시장, 군수, 의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보영상 상영에 이어 위원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기후 관련 홍보관이 운영되고, COP28 유치기원 범국민 서명 운동도 펼쳐진다.

엑스포를 입구에는 수소차, 전기차 등도 선보인다.

COP28 유치위원회는 공동유치위원장과 상임위원,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장, 사무총장, 운영위원 등 1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동유치위원장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고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이 이름이 거론된다.

위원회는 정책분과와 시민활동 분과, 자원협력 분과, 대외홍보 분과로 나누어 COP28 유치에 나선다.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UN기후변화협약에서 해마다 열고 있으며 제28차 총회는 대륙별 순회원칙에 따라 2022년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수시는 COP28을 2022년 11월 7~18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에 분산 개최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목포해수청, 부두운영회사 항만시설 운영실태 점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규표)은 16일부터 30일까지 목포해수청 관할 부두운영회사(TOC)부두 시설을 대상으로 사용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임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부두 내 현장사무실 등 가설건축물 관리, 임대시설을 비롯한 부속 시설의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하역작업 시 부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적

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TOC는 일정한 항만(부두)시설에 대한 전용운영권을 지니고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하며 목포항에는 CJ대한통운(주), 대불부두(주), 목포대불부두운영(주), 세방(주), 목포국제자동차부두(주) 등 5개 회사가 있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일제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TOC에 별도 통보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목포항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곡성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객 5만명 돌파

곡성 옥과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한 지 1년여 만에 누적 이용인원 5만명을 돌파했다.

곡성군에 따르면 옥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해 12월24일 개관했으며, 문을 연 이후 월평균 4500여명의 청소년들이 방문해 지난 8월 기준으로 이용인원 5만명을 돌파했다.

곡성군의 9세 이상 19세 이하 전체 인구가 2342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21차례 이용한 셈이다.

옥과면 인근 5개면으로만 한정하면 1인당 연간 47차례다.

이 시설은 접근성 문제로 곡성읍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관 이후 청소년 복합문화시설로서 요리와 예술, 공예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방과후 귀가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옥과권역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책임져왔다.

곡성군은 내년부터 6차 국가 청소년기본계획에 맞춰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와 청소년 시민캠프 등을 운영하고, 로봇,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4차 산업과 관련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곡성=김계초 기자 kjkim@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